

요약

2022년 말 기준 IFRS17 사전 공시를 통해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재무적 영향을 살펴봄. 보험회사는 IFRS17로 평가한 자본이 IFRS4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으며 손해보험회사는 이익도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상보다 높은 할인율 적용 및 신계약비 상각 기간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한편 보험회사는 자본 증가와 이익 확보의 균형점을 찾는 전환 방법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본과 이익 증가율이 상이하게 나타남

- 보험회사는 IFRS17 기준에 따른 2022년 말 기준 약식 재무제표를 사전 공시하였으며, 본고에서는 공개된 주요 지표를 통해 IFRS17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살펴봄
 - 감독당국은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등을 손쉽게 사전 파악함으로써 회사와의 정보비대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함¹⁾
 - 생명보험회사는 전체 22개 사,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국내 12개 사를 대상으로 분석함
- IFRS17에서 보험부채는 평가 시점 무위험수익률로 현금흐름을 할인하며 미래이익인 보험계약마진(CSM)을 보험부채에 표시 후 점진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신계약비는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 상각함(그림 1) 참조
 - 보험계약마진은 현금유입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 현재가치와 위험조정값을 차감하여 산출하므로 현금흐름 산출가정과 할인율 및 위험조정 수준에 의존함
 - IFRS4에서는 신계약비를 최대 7년간 상각하지만, IFRS17에서는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 상각함

〈그림 1〉 보험계약마진 산출 도해



-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IFRS4 대비 IFRS17에서 자산과 부채는 감소하고 자본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생명보험회사의 자본 증가율이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더 높음(〈표 1〉 참조)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8. 2), “새로운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시행 준비,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 자산은 미상각신계약비 및 보험계약대출 제거 등으로 인해, 부채는 금리 상승에 따른 할인율 상승, 보험계약대출의 현금흐름 반영 등에 의해 감소함
- 일반적으로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에 비해 더 길어 동일한 금리변화에서 자산 감소보다 부채 감소가 더 많아 자본이 증가하였으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자본은 각각 139%, 95% 증가함

〈표 1〉 2022년 말 기준 재무상태표 비교

(단위: 조 원)

구분	생보			손보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IFRS4(A)	926.4	878.1	48.3	351.6	322.9	28.7
IFRS17(B)	852.7	737.2	115.5	311.1	255.1	56.0
증감액(C=B-A)	△73.7	△140.9	67.2	△40.5	△67.8	27.3
증가율(C/A)	△8%	△16%	139%	△12%	△21%	95%

자료: 각 사, 「2022년 말 경영공시」

○ IFRS4 대비 IFRS17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생명보험회사는 제도 전후 큰 차이가 없으나, 손해보험회사는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함(〈표 2〉 참조)

-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보험손익은 증가하고 투자손익은 감소하였으나,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보다 보험부채 적립이율²⁾이 더 높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이 다름(생보사 6% 증가, 손보사 51% 증가)
- 보험손익 증가 및 투자손익 감소의 주요 요인은 IFRS4 보험비용 항목인 책임준비금 전입액이 IFRS17에서 투자비용 항목으로 변경된 것에 기인함

〈표 2〉 2022년 말 기준 포괄손익계산서 비교

(단위: 조 원)

구분	생보				손보			
	당기순이익	보험손익	투자손익	영업외손익	당기순이익	보험손익	투자손익	영업외손익
IFRS4(A)	3.7	△21.9	23.0	3.6	4.7	△2.1	8.8	△0.3
IFRS17(B)	3.9	4.3	0.1	0.9	7.1	7.6	1.2	0.2
증감액(C=B-A) 및 증가율(C/A)	0.2(6%)	26.2	△22.9	△2.7	2.4(51%)	9.7	△7.6	0.5

자료: 각 사, 「2022년 말 경영공시」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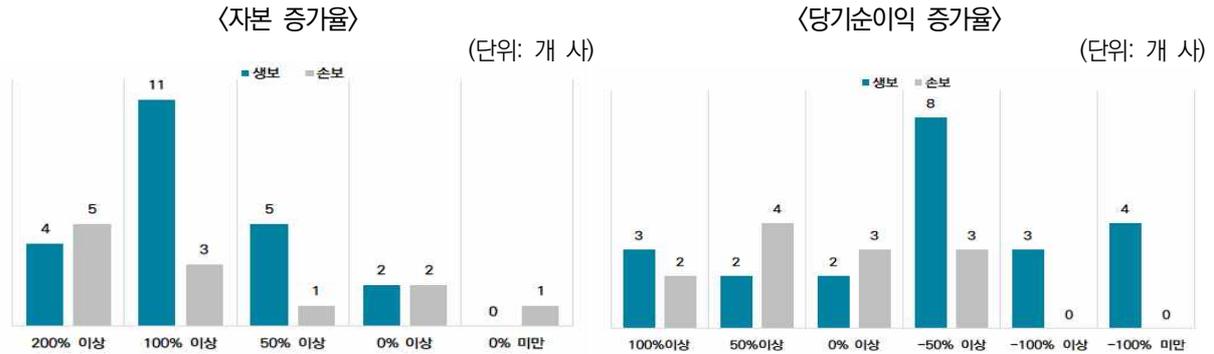
○ 생명보험회사는 모든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일부 회사만 증가하였고, 손해보험회사는 1개 사만 자본이 감소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대부분 회사가 증가함(〈그림 2〉 참조)

- 생명보험회사는 22개 사 모두 IFRS4에 비해 IFRS17의 자본이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7개 사만 증가하고 나머지 15개 사는 감소하여 전체 당기순이익 변화에 비해 회사별로 다양한 분포를 나타냄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9. 8)에 의하면 보험부채 적립이율은 생보사 4.8%, 손보사 3.6%로 생보사가 손보사에 비해 1.2%p 더 높음

- 반면, 손해보험회사는 12개 사 중 1개 사의 자본이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은 12개 사 중 9개 사가 증가함

〈그림 2〉 회사별 자본 및 당기순이익 증가율 현황



자료: 각 사, 「2022년 말 경영공시」

자료: 각 사, 「2022년 말 경영공시」

- 전체 보험계약마진 규모는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작으며, 순보험계약부채에서 전체 보험계약마진이 차지하는 비중은 손해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더 높음(〈표 3〉 참조)

- 전체 보험계약마진은 손해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보다 9조 원이 더 많아 생명보험회사 신계약의 급격한 성장이 없다면 상당 기간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생명보험회사의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전체 보험계약마진 대비 2022년 보험계약마진 비중은 2%p 차이로 신계약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한편, 순보험계약부채에서 보험계약마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명보험회사 9%, 손해보험회사 35%로 생명보험회사는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보험계약마진이 낮은 연금 및 저축보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가 발생함

〈표 3〉 보험계약마진 비교

(단위: 조 원)

구분	보험계약마진				재무상태표 대비 전체 보험계약마진 비중		
	전환시점 (a)	전체 (b)	차이 (c=b-a)	2022년 비중 (c/b)	자산	순보험계약부채	자본
생보사(A)	44.3	53.6	9.3	17%	6%	9%	46%
손보사(B)	50.7	62.5	11.8	19%	20%	35%	112%
차이(B-A)	6.4	9.0	2.5	2%p	14%p	26%p	65%p

주: 1) 전환시점은 2021년말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계약마진이며, 전체는 2022년 말 기준 보험계약마진임

2) 순보험계약부채=보험계약부채-보험계약자산

자료: 각 사, 「2022년 말 경영공시」

- 보험계약마진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전환방법을 살펴보면 생명보험회사는 소급기간 3년 적용이 10개 사(45%)로 가장 많으며, 손해보험회사는 소급기간 5년 적용이 5개 사(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표 4〉 참조)

- 소급법 기간이 길수록 보험계약마진이 증가하며 공정가치법은 보험계약마진 규모가 소급법에 비해 작음³⁾

- 부채 증가에 따른 자본 감소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소급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이 향후 이익 확보에 유리하나 감독회계에서는 비교가능성을 위해 소급법의 소급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함

〈표 4〉 전환방법 현황

(단위: 개 사)

구분	소급기간					공정가치법	합계
	5년	4년	3년	2년	1년		
생보	1(5%)	3(14%)	10(45%)	1(5%)	3(14%)	4(18%)	22(100%)
손보	5(42%)	2(17%)	3(25%)	0(0%)	0(0%)	2(17%)	1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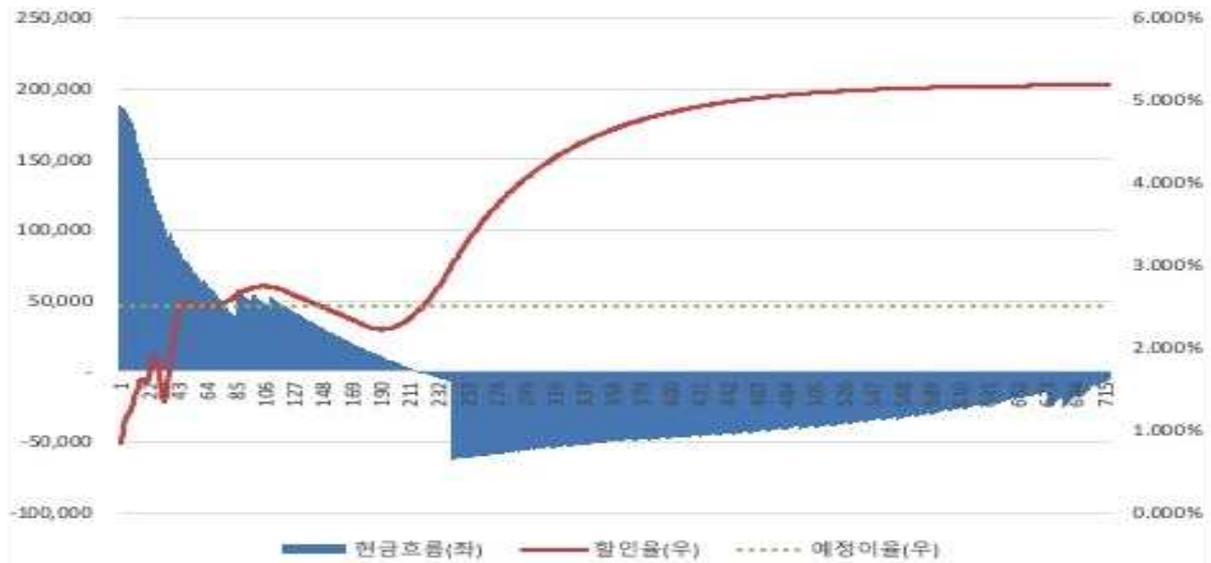
자료: 각 사, 「2022년 말 경영공시」

- 보험회사는 IFRS17로 평가된 자본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손해보험회사는 이익도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할인율 및 신계약비 상각기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제도 도입시기와 금리상승기가 맞물려 예상보다 높은 할인율로 보험부채가 평가되어 부채 감소 및 보험계약마진 증가로 인해 자본과 이익이 동시에 증가함<부록> 참조
 - 보험료 납입시점에는 예정이율 대비 낮은 금리, 보험금 지급 시기에는 예정이율 대비 높은 금리로 할인된다면 현금흐름 현재가치가 예상보다 감소하게 되어 보험계약마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상각 후 인식되는 이익도 증가함
 -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간접신계약비에 비해 부채 현금흐름에 반영하는 직접신계약비가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 상각되므로 도입 초기 이익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침
 - IFRS4에서는 신계약비를 최대 7년간 상각하지만 IFRS17에서는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 상각함
- 전체적인 보험회사의 자본과 이익 증가는 주로 할인율 및 신계약비 제도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보험회사 별 자본과 이익 증가율이 상이한 것은 전환방법 등을 활용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여겨짐
 - 보유계약의 전환방법에 따라 CSM 규모가 변해 보험회사의 자본 및 이익이 달라지므로 보험회사는 자본 증가와 이익 확보의 균형점을 찾는 전환방법을 회사 상황에 맞게 선택한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회사는 소급기간 3년을 주로 선택하여 자본은 모든 회사가 증가하였으나 이익은 일부 사만 증가하였고, 손해보험회사는 대부분 회사가 소급기간 5년을 선택하여 자본뿐만 아니라 이익도 증가함
- IFRS17 사전공시는 약식재무제표 사용에 따른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제도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식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2023년 1분기 이후 경영공시를 통해 보험회사 영향을 좀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사전공시에서는 IFRS17과 동시에 도입되는 IFRS9 영향을 일부 사만 반영하였으며 보험부채 평가요소인 위험조정 은 대부분의 회사가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는 등 IFRS17의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움

3) 위험조정 산출 시 소급법은 신뢰수준 75% 수준의 값을 적용하나 공정가치법은 신뢰수준 99.5%의 자본비용법을 적용하므로 소급법에 비해 보험계약마진이 작게 산출됨. 노건업·조영현·이승주(2023)는 소급법이 공정가치법에 비해 2배 가량 보험계약마진이 더 많음을 보여줌

부록. 보험계약 현금흐름

〈부록 그림 1〉 보험계약 현금흐름



자료: 노건업·조영현·이승주(2023), 『IFRS17 도입과 보험회사 가치경영』